



2026. 7. 9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은행권, '파산위기'홀플러스 협력사에 최대 5억 지원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NRjcrA>

5대 은행은 홀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중소협력사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납품업체와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갚아달 수 있는 대한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

'코리보 퇴출 카운트다운' 금감원 금리전환 점검 착수...기업은행 '비상'

뉴스1

<https://zrr.kr/r5ckAh>

내년부터 변동형 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돼 온 코리보(KOLIBOR)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대체 지표금리 전환 작업을 본격 점검
특히 코리보 기반 대출 비중이 높은 IBK기업은행은 대규모 대출을 순차적으로 다른 금리체계로 바꿔야 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

KB국민은행, 주택구입대출 한도 최대 3억원으로 축소... 비수도권·비규제지역 포함

이코노미스트

<https://zrr.kr/n6p2i4>

KB국민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수도권을 비롯해 대출 한도가 적용되지 않던 비규제지역·비수도권 모든 지역의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를 적용

같은 은행에 예금 맡겼는데 개인 2%대·기업 3%대 준다

서울신문

<https://zrr.kr/sltfXH>

기업이 맡긴 돈에는 연 3%대 중후반 금리를 주면서도 개인 정기예금 금리는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
가계대출 규제로 고금리로 고객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반면 생산적 금융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량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

변동성 커지자 증권사 증거금을 줄일지... '빗투' 줄어들까

서울경제

<https://zrr.kr/7UkMr>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요 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을 잇달아 높이고 있는 모습
증거금률이 오르면 같은 규모의 주식을 사기 위해 필요한 현금이 늘어나는 만큼 미수 거래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

발행어음 늘린 증권사, 채권 넘어 벤처투자자

한국경제

<https://zrr.kr/yJACIN>

발행어음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증권사들이 채권 투자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벤처기업 지분 투자까지 검토하기 시작
증권사 간 경쟁으로 투자 상품이 줄어들자 코스닥벤처펀드와 스타트업 지분 투자 등으로 투자처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금융지주들이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기조와도 연결

은행 이어 보험사도 신용대출 조인다

서울경제

<https://zrr.kr/PDOE2S>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사들도 이달부터 신용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모습
신용대출에 이어 보험사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계약대출도 관리 대상에 오르며 전방위적인 관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업보험' 부활 노리는 삼성화재

비즈니스위치

<https://zrr.kr/RCiOX3>

삼성화재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첨단 제조시설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부문 차원에서 B2B 비중을 현재 약 11%에서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 목표
AI 인프라를 둘러싼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려 관련 기업보험 수요도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정부 '압수 코인' 보관은 두나무...커스티디 전문기업 제쳤다

뉴스1

<https://zrr.kr/QsQ7mE>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경찰청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거래소 운영사가 커스티디 전문기업들을 제치고 사업 수주를 눈앞에 둔 것으로, 대규모 보험 가입 능력과 24시간 운영 인력 확보 등 사업 수행 역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EU, 비 EU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까지 MiCA 적용 확대 검토

디지털투데이

<https://zrr.kr/5WSq3x>

유럽연합이 비 EU 기업들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MiCA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
이번 논의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 제정 이후 회원국 내 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준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